# 코로나 장기화에 층간소음 분쟁 '급증'

## 지난해 총 4만2,250건 민원 신고…전년비 1.6배↑

## 환경부·지자체, 추석 앞두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해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에서 폭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과 비교해 1.6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2만6,934건으로, 이미 2019년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상당수가 뛰거나 걷는 소리로 파악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만61건) 중 67.6%를 차지했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 비중이 커지는 시기와 밀접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외활동이 크게 위축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 계절적으로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광주 동구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온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층간 소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평소 이웃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서구에서는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 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먼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공동주택(아파트) 내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법도 소개했다.

공동주택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매트를 까는 등 실내에서 이동할 때 발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안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 명절 기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역 선발

##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통과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

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번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한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하는 등 대학의 의무비율 준수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동신대 발전 위해 써주세요"

## 대신송촌문화재단 10억 기부

동신대학교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이 학교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신대는 기부받은 발전기금으로 현재 생활관 1동(송림학사)을 리모델링해 대신국제관을 조성하고, 광주·전남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대신송촌문화재단 관계자는 "동신대는 전남지역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으로서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며 "최근에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특성화, 산·관·학·연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발전기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전기금 기부로 인해 조성되는 동신대 대신국제관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지역의 대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장학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재단의 큰 뜻을 지역과 세계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신대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의 뜻을 기리고자 기부 배경 등을 새긴 패를 대신국제관 앞에 제작·부착할 계획이다.

/이나라 기자

**추석 음식 만들어요** 추석을 맞아 14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봉사원 등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송편, 전 등을 만들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경찰 수사받던 목포시의원 숨진 채 발견

##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정확한 사인 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던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목포시 달동 한 숙박업소 인근 공터에서 목포시의회 A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A 의원은 2016~2017년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토지를 일부 사들인 혐의(금융실명제법)로 B 전 의원과 함께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목포시의회 A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 의원이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최환준 기자

# "광주 사립유치원 근무여건 개선해야"

## 시민모임 "경력단절 차단·교육 시스템 구축"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과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근로계약을 맺는다"며 "하지만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하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아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하다"며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 '환경부장관상'

광주를 대표하는 '자원순환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동구(청장 임택)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1월 '쓰레기 없는 원년'을 선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남광주해뜨는시장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4대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17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한 결과 약 35% 감량 효과를 거뒀다.

또한 공동주택 2개소(소태동 백조아파트, 산수동 무등파크맨션)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해 전체 배출량의 85% 감량 효과를 거두고 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인근 텃밭의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은 전년 대비 8.6%, 1인당 발생량은 2.6%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선우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 5천(융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 5천(융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융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투자확신/강력추천!
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당진신축(원룸매매)**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 13억
(융6억 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

| | |
|---|---|
| 광주 |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
| |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
| |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억5천 (9/17) |
| |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
| |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
| |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
| |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
| 전남 |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
| | 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
| |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
| |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
| |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2억7천 -> 최저가7천 (10/12) |
| 시외 |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
| |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

062-382-5500